

가격차 없고 불편... 외면받는 셀프주유소

광주 1년새 5% 늘어 63개... 전체의 20%

시설투자비 환수 못해 사업자들 경영난 심화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해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고 계산하는 셀프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반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평을 사고 있다. 셀프주유소 사업자 역시 낮은 수익률로 인해 시설투자비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는 광산구 24개를 비롯해 북구(16개) 등에 총 63개의 셀프주유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영업중인 전체 주유소의 20% 수준으로, 지난해 비해 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만도 8곳이 새로 생겼으며 대부분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전환한 곳들이다.

이처럼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유가와 함께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조금이라도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주유소 역시 경영개선을 위해 인건

비 등을 줄이고 기름값을 낮춰 이익을 높이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 셀프주유소들이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실패, 운전자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수익은커녕 일반주유기보다 2~3배가량 비싼 셀프주유기 할부금도 못 내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지역 셀프주유소의 1당 휘발유 판매가격은 1772~1869원으로 일반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1812원과 별 차이가 없다. 또 셀프주유소 보다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주유소도 많아 운전자들이 값싼 일반주유소로 이탈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광산구 상무대로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를 최저가인 1당 1759원에 판매하고 있다.

광산구 신가동에 사는 이모(48)씨는 "셀프주유소를 찾아가 기름을 넣으려 해도 5분 이상 소요되고, 운행비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며 "셀프주



2일 광주 지역 한 셀프주유소에서 고객이 자동차에 주유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소를 이용하기엔 가격차가 너무 작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 사업자의 고충도 늘고 있다. 셀프주유소가 점차 늘다 보니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 주유소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뜰주유소와 가격 경쟁을 한 지가 엇제인데 이제는 또다시 값싼 시설을 투자해 셀프주유소로 변경해야하느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일반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사업도 어려운데 가격을 놓고 제 식구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혼

란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어 셀프주유소를 찾고 있지만, 인건비를 줄여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배달 및 관리 인원 등은 상주해야 하고 인건비 감축 효과는 미미해 가격 경쟁력은 크지 않다"며 "대기업 주유소를 제외한 지역 내 민간 셀프주유소 사업자들은 판매량 감소 및 유지비 상승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1.58 (-16.28)
- ▲ 금리 2.51% (-0.01)
- ▲ 코스닥 568.74 (+1.79)
- ▲ 환율 1018.30원(+5.20)



기아차, 교황방한위에 쓰올 기증 2일 서울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열린 '쓰올 기증 행사'에서 이삼용 기아차 사장(왼쪽 3번째) 등이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포포모빌'로 지원했던 쓰올 3대를 교황방한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파업 추석 넘기나

노사 통상임금 등 이전

17차 교섭 성과 없어

기아자동차의 파업이 추석을 넘겨 장기간 될 조짐이다. 매년 임금교섭과 관련, 추석 즈음 노사가 합의안을 만들었던 전례와 달리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데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의 의견이 16차례나 열린 교섭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기아차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경기도 화성공장 등에서 제17차 본교섭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노사가 여전히 의견이 다르다. '형님' 격인 현대차 역시 노사가 집중논의 속에서도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파업이 힘든 것이다. 기아차 노사

는 지난해 12차 실무협약과 16차 본교섭을 거치면서 단체협상 관련 11개 사항만 추진했을 뿐 임금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은 총돌이 계속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 매듭지을 수 있다"며 쉽지 않은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임단협은 추석을 넘겨 장기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년에는 추석을 넘겨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노사 모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는 통상임금이라는 이슈를 놓고 노사가 한치도 양보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느 해와 달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조합원이 한데 뭉쳐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상황을 길게 끌고 갈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광주에 더 많은 애정 가져달라"

市·시의회, 정칙권 등 호소문

광주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새누리당 광주시당,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등 주요 기관들이 2일 현대·기아차의 광주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관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기아차가 추진 중인 연산 30만대 규모의 멕시코 공장 설립이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이전 또는 생산물량 대폭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지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광주는 현대·기아차가 국내 투자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민들은 기아차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이 있고 광주공장은 노사 분규가 가장 적으며 생산성과 품질이 국내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광주에 대한 애정없는 관심을 바라달라"고 강조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겨울용 타이어 예약 판매

금호타이어, 11월20일까지

금호타이어가 지난 1일부터 올 시즌 겨울용 타이어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타이어 구매고객에게는 사은품도 증정한다.

대상 제품은 승용차용 윈터크래프트 KW27과 SUV 및 RV용 아이젠(I'ZEN) RV KC15이며 제품 예약 구매 시 방한 제품을 제공한다.

해당 타이어 4개 구입시 라파마 다운베스트 패딩조끼를, 2개 구매 시 금호타이어 대표 캐릭터 '포로'가 그려진 무릎 담요를 증정한다.

예약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중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에서 타이어 종류 및 규격, 구매 개수를 입력하고 가까운 대리점 및 장착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사전 예약판매 서비스는 겨울용 타이어 구매 시 재고 부족이나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 등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이 장점이다.

예약 판매 및 이벤트는 11월20일까지 열린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제수용품 싸게 팔아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2일 광주시 동구 KT빌딩 앞 광장에 밤·대추·과일 등 각종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개설한 장터는 오는 5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행 오늘 하루 총파업... 영업점들은 정상 운영

광주은행 200여명 상경 예정

금융산업노동조합이 3일 14년 만의 '하루 총파업'을 벌이지만 일선 은행 영업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지부 은행 노조들은 이날 총파업을 최종 결정하고, 참가 지점을 정해 내부 공고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2·17 합의(외환은행 독립경영 5년 보장) 준수

▲KB금융 낙산인사 문제 해결 ▲금융공기업 정상화 대책 저지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영업점은 분회장을 비롯한 1~2명, 본점 부서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상경인원을 포함해 2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파업 관련 동력이 작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파업 참여 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파업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조기 통합과 관련해 조합원 총회를 연다.

금융노조 총파업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노조 차원의 공동협상 대신 개별 임단단체 협상에 나섰다. 임단협이 결렬되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경영진 내분 사태로 회장과 행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국민은행 노조 역시 실제 파업 참여 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점포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고객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카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추신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둑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